



편하다! 멋있다! 값싸다!

캔버스화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나 즐겨신는 신발이다. 캔버스 천으로 만들어 통풍이 잘되며 가격도 싸데다 다양한 색상으로 캐주얼에서 슈트까지 모든 패션에도 어울리는 팔방미인형의 신발인 셈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지금 거리는 '캔버스화' 물결

기분따라 날씨따라 스타일따라 골라 신는 재미 남을수록 멋스런 빈티지... "물량 없어 못팔 정도"

캔버스 천으로 만든 운동화, 캔버스화가 거리를 뒤덮고 있다. 캔버스화 인기가 하루 이틀만 예기는 아니지만 최근에는 하이틴들은 물론 전 세대로 그 인기가 확산되는 추세다.

말창에 고무를 대서 발소리가 나지 않게 만든 신발을 일컬어 스니커즈화(sneakers shoes)라고 하는데 스니커즈의 일종으로 캔버스(canvas) 천을 이용해 만든 신발이 바로 캔버스화다.

가격대가 비교적 싼데다(3~9만원대) 오래 신어 낡을 수록 멋스럽게 빈티지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으며, 캐주얼 패션뿐만 아니라 슈트 스타일에도 어울리는 팔방미인이어서 유치원 생부터 40~50대 중년들까지 찾고 있다.

김지선(여·35·광주시 서구 금호동)씨는 아들(5)을 데리고 충장로에서 캔버스화 세

컬레를 샀다. 한 컬레는 자신이, 한 컬레는 남편에게, 나머지 한 컬레는 아들에게 주기 위해서다. 집에도 이미 캔버스화 한 컬레씩 가지고 있다.

김씨는 "우선 가격이 싸서 부담없이 계절 따라 구입할 수 있다"며 "옷 스타일에 따라 색깔이 다른 캔버스화를 사기 때문에 남들보다 개성 있는 감각을 뽐낼 수 있어서 자꾸 찾게 된다"고 말했다.

캔버스화는 교복을 입는 중고생에겐 다양한 색상으로 멋을 낼 수 있고, 대학생에겐 심플하면서도 슬림한 디자인으로 멋을 낼 수 있는 기본 아이템, 직장인은 운전이나 외출할 때 편안하게 신는 신발인 까닭에 지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캔버스화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 중·고생들이 실내화라 부르고 끈이 없는 슬립온(Slip-on), 발목 아래로 오는 일반적

인 스타일의 단화, 발목을 덮는 캔버스화, 종아리까지 올라오는 부츠 스타일 등이 있다.

최미연(여·24·전남대 3)씨는 흰색·녹색·빨간색 등 색깔별로 5컬레의 캔버스화가 있다. 기분에 따라 날씨에 따라 옷 스타일에 따라 골라 신는다.

최씨는 "솔직히 주위 친구들이 좋은 신발이라며 10만원 이상짜리를 신는 것을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다. 그 가격이면 세컬레를 살 수 있는 것이 캔버스화"라며 "굽이 전혀 없어 키가 커보일 수 없는게 단점이지만 어떤 옷을 입어도 어울리기 때문에 청바지와 반바지에 주로 입는 가장 좋아하는 신발이다"고 밝혔다.

신발가게에서 판매하는 캔버스화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 캔버스화에 자수를 놓기도 하고, 단추 등 액세서리를 이용해 붙이거나 물감을 이용해 새로운 색을 입히기도 한다. 이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이 갖고 있는 신발을 신고 싶기 때문이다.

이렇듯 유행이 계속 이어지자 각 신발 브랜드에서는 캔버스화 종류를 늘리거나 브랜드에 맞는 스타일로 내놓기도 한다.

캔버스화로 가장 유명한 브랜드는 역시 '미국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컨버스(Converse)다. 100여년이 된 전통에 현재까지 가장 많이 신는 신발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

광주시 동구 CONVERSE 총장점 심미선(여·50) 대표는 "유아용 캔버스화는 짧은 엄마들에게 입소문이 나서 210mm크기의 경우 주문 후 한참을 기다려야 할 정도"라며 "하루에 300컬레 이상 팔리는 등 계절에 관계없이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 동구 PUMA 총장점에는 올 가을에 맞춰 캔버스화 10여종류를 새롭게 들여왔다. 지난 봄에 PUMA 캔버스화가 큰 인기를 끌었던 탓에 가을을 맞아 고객들이 더욱 많이 찾을 거라는 생각에 종류를 더욱 늘렸다.

PUMA 총장점 장민태(54) 대표는 "남녀노소 관계없이 캔버스화를 즐겨 찾기 때문에 봄에는 물량이 없어 못파는 등 즐거운 비명을 지르기도 했다"며 "simple·slim·sporty 등 3가지 요소를 다 갖추고 유행을 타지 않는 유일한 스타일"이라고 평가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한 집에 한 컬레는 있다”

100년 전통 '컨버스' 9억 컬레 팔려



캔버스화 매출 1위 브랜드는 컨버스(Converse)다.

미국 NBA 농구스타였던 척 테일러(Chuck Taylor)의 '척 테일러 올스타 캔버스' 이름의 신발은 전 세계적으로 9억 컬레가 팔려 단일 상품으로는 이례적인 기록을 갖고 있다.

1908년부터 지금까지 100년이라는 전통을 이어오며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컨버스는 이제 남녀노소의 패션 아이콘으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며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신발이 됐다.

이런 캔버스화 열풍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의 영향일 뿐 아니라 매년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을 선보여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이뤄낸 결과다.

오리지널 캔버스만의 형태는 유지하면서 디자인이나 컬러에 변화를 주고 있는데 젊어 신는 스타일로 유행이 됐던 롤다운(Roll-down) 캔버스화, 패션 소품을 신발에 접목한 반다나(Bandana) 캔버스화, 독특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더블 텡(Double Tongue) 캔버스화 등 끊임 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캔디 캔버스(candy converse)'화는 캔버스라는 소재 특성상 다른 스니커즈에서는 이제껏 기대하기 힘들었던, 생생한 색채감을 살린 독특한 컬러의 캔버스 스니커즈 마니아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 냈다.

남들과 다른 스타일, 새로우면서도 클래식함을 잃지 않는 트렌디한 스타일의 오리지널 캔버스는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13일 오후 광주시 동구 컨버스(Converse) 총장점에는 가을을 맞아 캔버스화를 사기 위한 손님들이 몰리면서 성황을 이뤘다. 가격은 3만원대부터 9만원대까지.

100년의 사랑 - 부채표

“저도 까스활명수 좋은거 다 알아요!!”

젊다고 뭐든지 다 소화시키는거 아니잖아요.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고... 저는 그럴 땐 까스활명수만 마셔요. 소화에 좋은 11가지 생약성분까지 있으니까 - 부채표 까스활명수 좋은거 저희도 다 알아요!

11가지 생약성분 소화제 - 부채표 까스활명수큐!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
 소화를 돕는 까스활명수의 11가지 생약성분 : 아신약, 고추틴크, 계피, 육두구, 현호색, 정향, 창충, 건강, L-Menthol, 진피, 후박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섭취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광고심의필 928-0200]

11가지 생약성분 - 부채표 **까스활명수** 큐